

“소방 국가직 전환 법률 통과해야”

이낙연 총리, “2월 임시국회 통과되도록 도와주길” “소방인력, 장비 격차 커서 주민 보호정도도 차이 임금체불 노동자 수 35만명… 체당금 제도 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에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에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직 국가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지자체 재정 수준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지난해 7월 기준) 중 국가직은 631명(1.3%)지만 지방직은 4만9539명(98.7%)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다. 국민을 위협에서 구출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위험으로 뛰어든다”며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이 보호받는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며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소방청을 독립청으로 승격했고, 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소방장비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이낙연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설 민생대책 중 하나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임금 체불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 임금액은 1조6472억원이나 된다. 피해노동자 수와 피해금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밝

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 상정될 정부 대책은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그리고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국회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도록 소액 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기대를 가질 만하다”며 “그런 내용을 잘 알려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9일이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 1주년을 맞는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은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의 유산을 남겼다”면서도 “동시에 사후관리 등의 과제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공의 유산은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과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

장병 개인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 확대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6~10시 · 휴일, 오전 7~10시

모든 병사들이 오는 4월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4월부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하고, 이르면 오는 7월경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정착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과 중에는 통합 보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마다 실정을 고려해 개인 보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2019년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17일 전주중앙성당에서 실시된 가운데 사제, 부제 수품 후보자들이 비단에 엮드려 기도를 하고 있다. 이날 서품식은 교구장인 김선태 사제요한 주교의 주례로 진행됐으며 운영현 가브리엘, 이치선 시몬, 임범동 사제요한 세명이 사제 서품을 받고 윤대성 세례자요한, 이한유 미카엘 두 명이 부제 서품을 받았다.

부대 내 와이파이 장비 설치도 해킹 시도가 가능한 만큼 통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 군에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병사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관련해 이달까지 각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뒤,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병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단결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은 물론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포상기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

민주 “손혜원 해명 수용 서영교는 원내수석 사임”

손 ‘투기목적 없었다’ 해명 수용... 상황 지켜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재판 청탁’과 ‘목포 투기 의혹’으로 주목받는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내놨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도록 했고, 손 의원에 대해서는 해명을 수용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오후 6시5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 사임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 의원에 관해선 “목포 근대 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도심 역사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 투기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이외 제기된 문제는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9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다. /뉴스

성폭력 ‘2차 피해’ 최고 징역 5년

김수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체육계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공동위원장이 김수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인적사항 누설 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 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누설 등 등록정보 누설과 동일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

홍준표 “한국당, 도로 친박당 안되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당과 관련해 “도로 친박당, 탄핵당, 병역비리당이 되지 않게 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교했다.
다만, 포상기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

“황교안 레밍 신드롬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 반갑다”며 이같이 적었다. 레밍신드롬이란 아무 생각없이 무리를 따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당 일부 의원들이 지지 모임을 갖는 등의 움직임이 지적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전 대표는 30일 저서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뉴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